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魯耀翰

1. 들어가며

南孝溫(1454-1492)의 『秋江冷話』에는 元好問(1190-1257), 金時習(1435-1493)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金時習은 독서할 때에 文義에 구애되지 않고 大旨를 보고 大義를 음미할 뿐이었다. 남효온이 「征夫怨」 10수를 지어 元遺山의 시에 和韻하였는데 그 중 1 편은 다음과 같았다.

百草凋霜月滿空
年年鞍馬任西東
令嚴萬幕平沙夜
部伍相招鼓角中

온갖 풀 서리에 시들고 달빛 하늘에 가득한데
해마다 군마 타고서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네
밤중 사막의 온 군막에는 군령이 지엄하여
북과 호각 소리 속에 대오가 서로 부르네

그런데 金時習이 보고 실소하며 말하기를 “글자가 크게 잘못되었소. 어찌 군령이 엄한 때에 다시 서로 부르는 일이 있겠소?” 라고 하고는 『시경』 「小雅·車攻」을 취하여 내게 보여 주었다. 그 시에 “이 사람이 정벌하러 가니, 소문만 있고 소리는 없도다. 진실된 군자는, 참으로 대성하리라.[之子于征, 有聞無聲. 允矣君子, 展也大成.]” 라고 하였다. 남효온은 깊이 그 말에 감복하고 돌아와 洪餘慶에게 이 일을 말하였더니, 洪餘慶이 찬탄하며 말하기를 “東峰의 독서가 가장 좋고 가장 좋구나.” 라고 하였다.¹ 金時習은 「山居集句」에서 元好問의 “小樓人靜月侵床”로 集句詩를 짓기도 했다.²

元好問의 文集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다.³ 다만 權近(1352-1409)은 1390년에 지은 「題盾谷李公書室」의 自註에서 “집에 『元遺山集』이 있었으므로 그 詩韻을 썼으며, 折花·雲山 두 그림이 또 진귀하였으므로 아울러 시를 지었다.”⁴ 라고 하고 있어,

고려말에는 『元遺山集』이 輸入되어 文人들 사이에서 읽히고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그런데 元好問에게는 文集 외에 『遺山樂府』가 있어, 初刊本은 전하지 않고 弘治 5년 (1492, 朝鮮成宗 23)에 晉州에서 木板으로 간행한 朝鮮刊本이 國內외에 전한다. 이 책은 李宗準의 「遺山樂府詩跋」에 의하면 “舊本을 가지고 殘文과 誤字를 考校하고, 淨本을 謄寫하여, 마침내 晉州牧使 慶緝에게 부탁하여 上梓한 것 [於是就舊本考校殘文誤字, 謄寫淨本, 遂屬晉州慶牧使緝繕梓]”으로, 舊本의 殘文과 誤字를 교정하고 淨寫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晉州刊本 『遺山樂府』는 弘治 11년 (1498)에 中國에서 간행된 것보다 6년이 앞서는 것으로, 朱孝臧 (1857-1931)은 『彊村叢書』所收 『遺山樂府』3卷(高麗刊本)에서 이 晉州刊本을 底本으로 삼기도 하였다.

晉州刊本 『遺山樂府』에 대해서는 車柱環 (1976)⁵에 의해 처음 소개되고, 尹浩鎭 (1997)⁶은 李宗準 「遺山樂府詩跋」을 중심으로 中國의 詩歌理論이 韓國의 漢詩論에 미친 影響을 검토한 바 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元好問 『遺山樂府』의 刊行과 그 影響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晉州刊本 元好問 『遺山樂府』의 刊行

晉州刊本元好問 『遺山樂府』는 同本이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2부, 하버드대학 하버드-엔칭도서관에 1부 등 3부가 확인된다.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 도서관

請求記號 : 고서 (귀) 293 0

3卷 1冊 : 四周單邊 半郭 15.9 × 11.8 cm, 有界, 10行 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4 cm

跋 : 時弘治紀元之五年壬子 (1492) 重陽後一日 都事月城李宗準仲勻識

請求記號 : 고서 (귀) 810 0

3卷 1冊 : 四周雙邊 半郭 15.6 × 11.9 cm, 有界, 10行 17字, 大黑口,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上下內向黑魚尾; 23 cm

跋: 時弘治紀元之五年壬子 (1492) 重易後一日 都事月城李宗準仲勻識

2) 하버드대학 하버드 - 엔칭도서관

請求記號: TK 5237.5 1147

HOLLIS number: 990079922420203941

3卷1冊: 四周雙邊 半郭 15.6 × 11.9 cm, 有界, 10行17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23.9 × 16.3 cm

跋: 時弘治紀元之五年壬子 (1492) 重易後一日 都事月城李宗準仲勻識
印記: 「臨淵齋章」(朱文方印)

『遺山樂府』의 刊行에 대해서는 『成宗實錄』 권 285 成宗 24년 (1493) 12월 28일의 記事에李克墩 (1435-1503) 이 慶尙監司가 되고,李宗準 (?-1499) 이 都事가 되었을 때 『酉陽雜俎』·『唐宋詩話』·『破閑集』·『補閑集』·『太平通載』 등과 함께 『遺山樂府』를 刊行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⁷

앞서 보았듯이李宗準은 이 晉州刊本 『遺山樂府』에 跋文을 작성했는데, 이에 따르면 舊本 『遺山樂府』을 가지고 殘文과 誤字를 考校하고 淨本을 謄寫하여서 당시 晉州牧使 慶緝에게 부탁하여 간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때 舊本이란 唐本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唐本을 朝鮮에서 覆刻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跋文은 ‘弘治紀元之五年壬子重陽後一日’에 작성되었는데 이때는 成宗 23년 (1492) 9월 10일에 해당한다.⁸



<그림 1> 하버드대학 하버드 - 엔칭 도서관 소장 『遺山樂府』. 裴三益 (1534-1588) 의 장서인이 눌러져 있다.

하버드대학 하버드 - 엔칭도서관 소장 『遺山樂府』는 首葉에 元好問 「遺山自題樂府引」 3葉(半葉 8行10字). 序末에 “歲甲午 [...] 十月五日, 太原元好問裕之題.” 라고 있다. 이어서 「遺山樂府目錄」이 2葉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목록에 이어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首行에 ‘遺山樂府卷之上’, 次行低 8 格 ‘太原元好問裕之’ 라고 되어 있다. 次行에 低3格으로 편명 ‘水調歌頭’ 가 나오고 행을 바꾸어 低 1 格으로 小序, 次行 平頭에서 시 본문이 이어진다. 首題 아래에 「臨淵齋章」(朱文方印) 이 눌러져 있다. 中縫에는 ‘遺山上’ 이라고 하여 서명과 권차를 표시하고 아래에 頁次를 기재하였다.

元好問의 「遺山自題樂府引」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 전하는 악부는 많다. 黃山谷 (황정견) 의 「漁父詞」에 “푸른 대곶길 샷갓 앞 무한한 일, 푸른 도롱이 아래 한때의 휴식, 기운

바람 가랑비에 뱃머리를 돌리누나. [靑箬笠前無限事, 綠蓑衣底一時休, 斜風細雨轉船頭]”라고 하고 陳去非(진여의)의 「懷舊」에 “옛날에 午橋莊의 다리 아래에서 술마실 적 생각하니, 좌중이 모두 호걸 영웅이었어라. 긴 도랑에 달빛 소리 없이 떠나고, 살구꽃 드문 그림자 속에서 피리 불어 날 밝았지. 삼십 년이 한바탕 꿈 같으니, 이 몸이 살아 있음이 놀랍기만 하구나. 한가히 높은 누각에 올라 맑게 갠 하늘 감상하니, 지난 세월 여러 일 많기도 하였는데, 삼경에 들려오는 어부의 노랫소리. [憶昔午橋橋下飲, 坐中都是豪英. 長溝流月去無聲. 杏花疏影裡, 吹簫到天明. 三十年來成一夢, 此身雖在堪驚. 閒登高閣賞新晴. 古今多少事, 漁唱起三更]”라고 하고 또 “楚辭를 높게 읊으며 단오일에 수작하니, 천애의 곳에서도 節序는 총총히 지나간다. 석류꽃은 무희의 치마처럼 붉지 않은데, 이 마음 아는 이 없으니, 노래 마치자 주렴에 바람만 가득하구나. 만사에 이 한 몸 늙어 서러운데, 접시꽃은 담장 동쪽에서 비웃는다. 술잔의 깊고 얇음은 지난해와 같은데, 시험삼아 澆橋 아래에 술을 부으면, 오늘 저녁에는 湘江에 이르리라. [高詠楚辭酬午日, 天涯節序匆匆. 榴花不似舞裙紅. 無人知此意, 歌罷滿簾風. 萬事一身傷老矣, 戎葵凝咲墻東. 酒杯深淺去年同. 試澆橋下水, 今夕到湘中]”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류를 詩家에서는 言外句라고 하는데, 머금고 오랫동안 곱씹으면 전하지 않는 묘함이 은연중에 미간에 떠오르니 오직 구안자만이 이를 감상할 수 있다. 옛날부터 있어 누구나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비유하자면 여윈 암소와 늙은 숫양을 일천 번 끓이고 일백 번 단련하면 椒桂의 향이 사람의 코에 거스르나, 한 번 찮은 뒤에는 오래된 숨이 입안에 가득하여 혹 역겨워 토해내지만, 반드시 金頭의 큰 거위와 같이 소금에 절여 이들을 묵히고 火候를 잘 아는 늙은 여종으로 하여금 삶게 하여 황색 고기와 흰 비계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더욱 나와 그 깊은 맛을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갑오년(1234)에 내가 쓴 『遺山新樂府』가 이루어지자 손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전에 宋人의 시는 대개 唐에 미치지 못하고 악부가사는 낫다고 하였는데 이 논의는 매우 옳다. 악부 이래 蘇軾이 제일이고 이후 곧바로 辛棄疾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 의론 역시 옳다. 소식과 신기질은 논하지 말고, 그대가 得意 했

을 때 秦觀·晁補之·晏幾道·賀鑄의 여러 사람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라고 하였다. 나는 크게 웃고 객의 등을 어루만지며 “어떻게 알겠는가. 蛤蜊나 먹으세.” 라고 말했다. 객 역시 웃으며 떠났다. 10월 5일 太原 元好問 裕之는 題한다.

世所傳樂府多矣. 如山谷「漁父詞」: “青箬笠前無限事, 綠蓑衣底一時休, 斜風細雨轉船頭.” 陳去非「懷舊」云: “憶昔午橋橋下飲, 坐中都是豪英. 長溝流月去無聲. 杏花疏影裡, 吹簫到天明. 三十年來成一夢, 此身雖在堪驚. 閒登高閣賞新晴. 古今多少事, 漁唱起三更.” 又云: “高詠楚辭酬午日, 天涯節序匆匆. 榴花不似舞裙紅. 無人知此意, 歌罷滿簾風. 萬事一身傷老矣, 戎葵凝咲墻東. 酒杯深淺去年同. 試澆橋下水, 今夕到湘中.” 如此等類, 詩家謂之言外句, 含咀之久, 不傳之妙, 隱然眉睫間, 唯具眼者乃能賞之. 古有之, 人莫不飲食, 鮮能知味. 譬之羸牴老羝, 千煮百鍊, 椒桂之香逆於人鼻, 然一吮之後, 敗絮滿口, 或厭而吐之矣. 必若金頭大鵝, 鹽養之再宿, 使一老奚知火候者烹之, 膚黃肪白, 愈嚼而味愈出, 乃可言其雋永耳. 歲甲午, 予所錄『遺山新樂府』成, 客有謂予者云: “子故言宋人詩大概不及唐, 而樂府歌詞過之. 此論殊然. 樂府以來, 東坡爲第一, 以後便到辛稼軒, 此論亦然. 東坡·稼軒卽不論, 且問遺山得意時, 自視秦晁賀晏諸人爲何如?” 予大咲, 拊客背云: “那知許事, 且噉蛤蜊.” 客亦咲而去. 十月五日, 太原元好問裕之題.

元好問은 黃庭堅과 陳與義의 詞 작품을 인용하고는 詞 작품을 詩家들은 言外句라고 하는데, 오래 씹으면 전하지 않는 오묘함이 은연 중에 눈썹 사이에 떠오르니, 오직 具眼者만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갑오년(1234)에 『遺山樂府』가 이루어졌는데, 손님이 “그대는 전에 宋人의 시는 대개 唐에 미치지 못하고 악부가사는 낫다고 하였는데 이 논의는 매우 옳다. 악부 이래 蘇軾이 제일이고 이후 곧바로 辛棄疾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 의론 역시 옳다. 소식과 신기질은 논하지 말고, 그대가 得意 했을 때 秦觀·晁補之·晏幾道·賀鑄의 여러 사람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라고 묻자, 元好問은 크게 웃고 객의 등을 어루만지며 “어떻게 알겠는가. 蛤蜊나 먹으세.” 라고 하였다고 한다. 서문 작성일은 1234년 10월 5일이다.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서문을 작성한 1234 년은 元好問이 45 세 되던 해이다. 그 해는 元好問이 聊城에 抑留된 지 2년이 되던 해로, 정월에 金이 멸망하였다. 元好問은 1221 년 (32세) 進士가 되어 1224 년 (35세) 에 權國史院 編修라는 관직으로 관리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해는 金의 마지막 임금인 哀宗 (1224-1234 재위) 이 제위에 오른 해이기도 했다. 당시는 蒙古의 세력이 팽창하기 시작하던 때로, 哀宗 正大 8 년 (1231) 부터 金이 蒙古의 침공에 붕괴되기 시작하여, 1232 년 蒙古軍이 汴京을 포위하자 哀宗은 河北으로 出奔한다. 1233년 金의 西面元帥로 있던 崔立 이 반란을 일으켜 성문을 열어 몽고군이 汴京을 점령하자, 元好問은 당시 蒙古의 宰相 耶律楚材 (1190-1243) 에게 書翰을 보내 50여 인의 주요 인물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元好問은 그 일주일 후 聊城에 抑留되고 만다. 1234년 정월 몽고와 송의 연합군에 蔡州가 함락되고 그곳에 있던 哀宗이 自殺함으로써 金은 완전히 멸망한다. 금 멸망 후 元好問은 金의 遺民으로서 새 왕조에 벼슬 나가지 않고 聊城에 체류하면서 金의 역사와 문학을 정리하는 일을 여생의 사명으로 삼았다고 한다.⁹

李宗準이 작성한 「遺山樂府詩跋」은 다음과 같다.¹⁰ 이 발문은 하버드대학 소장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李宗準의 문집 『慵齋遺稿』에 수록되어 있는 「遺山樂府詩跋」을 단락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부는 詩家의 大香奩이다. 원호문이 저술한 바는 清新하고 婉麗한데, 스스로 보기를 秦觀·晁補之·晏幾道·賀鑄와 비교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듯하여, 직접 蘇軾과 辛棄疾의 작품에 追配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동파가 제일이어서 작자가 얻기 어려운 것이라 여긴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陳師道 (1053~1101)는, 소식이 시로 詞를 짓기를 教坊의 雷大使의 춤과 같이 하였으니, 비록 천하의 공교로움이지만 요컨대 本色이 아니라고 여겼다. 李清照 (1084~1155) 역시 “子瞻의 歌詞는 모두 句讀가 정리되지 않은 시일 뿐이어서, 종종 音律이 맞지 않는다. 王安石과 曾鞏의 문장은 西漢과 비슷하지만, 小歌詞를 지으면 사람들이 반드시 절도하며 읽지 못할 것이다. 곧 詞는 별도의 一家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라고 하였다. 저 세 선생의 집대성으로도 오히려 사람들의 譏議를 면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樂府, 詩家之大香奩也. 遺山所著, 清新婉麗, 其自視似羞比秦晁賀晏諸人, 而直欲追配於東坡·稼軒之作. 豈是以東坡爲第一, 而作者之難得也耶? 然后山以爲子瞻以詩爲詞, 如教坊雷大使之舞, 雖天下之工, 要非本色. 李易安亦云: “子瞻歌詞, 皆句讀不葺之詩耳, 往往不協音律. 王半山·曾南豐, 文章似西漢, 若作小歌詞, 則人必絕倒不可讀也. 乃知別是一家, 知之者小[少].” 彼三先生之集大成, 猶不免人之譏議, 況其下者乎?

“元好問이 스스로 보기를 秦觀·晁補之·晏幾道·賀鑄와 비교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듯하다.[其自視似羞比秦晁賀晏諸人.]” 라는 말은 元好問 「遺山自題樂府引」에서 자신을 秦觀·晁補之·晏幾道·賀鑄와 비교해 어떤가라는 손님의 질문에 대해 元好問이 “어떻게 알겠는가. 蛤蜊나 먹으세 [那知許事, 且噉蛤蜊.]” 라고 대답한 것을 염두에 둔 평가이다. 또한 “직접 東坡(蘇軾)와 稼軒(辛棄疾)의 작품에 追配하고자 하였다.[而直欲追配於東坡·稼軒之作.]” 은 마찬가지로 元好問 「遺山自題樂府引」에서 “악부 이래 蘇軾이 제일이고 이후 곧바로 辛棄疾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이 의론 역시 옳다. [樂府以來, 東坡爲第一, 以後便到辛稼軒, 此論亦然.]” 라고 한 것을 따른 것이다.

대저 詩文은 平側을 구분하지만 歌詞는 五音과 五聲을 구분하고 또 六律을 구분하여, 淸濁과 輕重이 모두 조화로운 후에야 入腔할 수 있다. 대개 東坡는 스스로 말하기를 평생에 세 가지가 다른 사람만 못하였으니, 歌舞가 그중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歌詞는 간혹 入腔하지 못한 곳이 있다. 하지만 王安石과 曾鞏은 모두 學際의 天人이다. 小歌詞를 짓는 것은 마치 大海에 蠡水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謗傷할 수 있겠는가?

夫詩文分平側, 而歌詞分五音五聲, 又分六律, 淸濁輕重, 無不克諧, 然後可以入腔矣. 蓋東坡自言, 平生三不如人, 歌舞一也. 故所作歌詞, 間有不入腔處耳. 然半山·南豐, 皆學際天人. 其於作小歌詞, 直如酌

蠡水于大海, 豈可謗傷耶?

이중준은 다시 陳師道와 李清照의 말을 인용하여 소식의 사 작품 역시 시로 사를 지은 것 [以詩爲詞] 이라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사는 소식 문학의 본령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곧 사는 별도의 한 영역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은 별도의 재능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중준은 그 이유에 대해 아래에서 시는 평측만을 구분하지만 사는 五音과 五聲, 六律을 구분하여, 淸濁과 輕重이 모두 조화로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우리 東方은 이미 중국과 語音이 매우 달라, 이른바 樂府에 있어서 引聲과 唱曲을 알지 못하고, 그저 글자의 平側과 句의 長短을 구분하여 韻을 맞출 뿐이어서 모두 이른바 詩로 詞를 짓는다는 것이니, 가슴을 부여잡고 얼굴을 찌푸려도 다만 그 醜陋함을 볼 뿐이다. 그러므로 文章의 巨公들도 모두 감히 억지로 짓지 않았으니 재주가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는 또한 中國人으로 하여금 「鄭瓜亭」과 「小唐鷄」의 풀이를 하도록 한다면,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갇힌이 끊어지도록 웃게 하고 말 것과 같은 것이다. 오직 李齊賢은 忠宣王을 入侍하여 閻復·趙孟頫 등 여러 學士들과 從游하면서 詩餘의 衆體를 갖추어 알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우리 東方에서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后山(陳師道)과 易安(李清照)이 살아난다면, 弊衣로 서서히 걸어서 진짜 孫叔敖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로써 樂府는 잠깐 동안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니, 비록 악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장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니다.

吾東方, 既與中國語音殊異, 於其所謂樂府者, 不知引聲唱曲, 只分字之平側, 句之長短, 而協之以韻, 皆所謂以詩爲詞者, 捧心而顰其里, 祇見其醜陋耳. 是以文章巨公, 皆不敢強作, 非才之不逮也, 亦如使中國人若作鄭瓜亭小唐鷄之解, 則必且使人撫掌絕纓矣. 唯益齋入侍忠宣王, 與閻·趙諸學士游, 備知詩餘衆體者, 吾東方一人而已. 然使后山易安可作, 未知弊衣緩步, 爲眞孫叔敖也耶? 以此知人不可造次爲之, 雖未知樂府, 亦非我國文章之累也.

이종준은 조선의 언어가 이미 중국과 달라 樂府의 引聲과 唱曲을 알지 못하고, 그저 글자의 평측과 句의 장단을 구분하여 韻을 맞출 뿐이어서, 이는 이른바 시로 사를 짓는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국인들이 高麗歌謠인 「鄭瓜亭」이나 「小唐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조선 문인으로서 사 문학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다. 이는 앞에서, 원호문이 사의 일인자로 꼽은 소식 역시 진사도나 이청조에 의해 시로 사를 짓는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언급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사를 잘 지은 문인으로 이제현 한 사람이 있지만, 그 역시 진사도나 이청조가 살아난다면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외운 지 오래되었다. 이제 이것을 監司 廣原 李相國에게 고하니, 相國이 말하기를 “그대의 이 말은 옳다. 하지만 학자들이 이를 모방하려고 한다면 이 시집을 널리 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이에 舊本을 가지고 殘文과 誤字를 考校하고, 淨本을 謄寫하여, 마침내 晉州牧使 慶紕에게 부탁하여 上梓하였다. 弘治 5년 (1492, 壬子) 9월 10일 都事 月城 李宗準 仲勻은 기록한다.

愚之誦此言久矣. 今以告監司廣原李相國, 相國曰: “子之言是矣. 然學者如欲依樣畫葫蘆, 不可不廣布是集也.” 於是就舊本考校殘文誤字, 謄寫淨本, 遂屬晉州慶牧使紕繡梓, 時弘治紀元之五年壬子重陽後一日, 都事月城李宗準仲勻識.

元好問은 『遺山樂府』에서 작품을 編年式이 아닌 分類式으로 編次하였으며, 수록 작품 수는 모두 55 調 218 首이다. 목록을 들면 다음과 같다.

卷上

水調歌頭 (11) 摸魚兒 (3) 木蘭花慢 (6) 水龍吟 (5) 沁園春 (2)
 賀新郎 (1) 最高樓 (1) 玉漏遲 (1) 滿江紅 (8) 念奴嬌 (1)
 永遇樂 (1) 聲聲慢 (1)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卷中

石州慢 (2) 洞僊歌 (2) 滿庭芳 (1) 八聲甘州 (2) 江城子 (14)
三奠子 (2) 行香子 (1) 感皇恩 (2) 促拍醜努兒 (3) 青玉案 (2)
婆羅門引 (1) 江梅引 (1) 玉樓春 (1) 定風波 (2) 蝶戀花 (3)
臨江仙 (15) 江月晃重山 (1) 虞美人 (2) 小重山 (2) 鵲橋仙 (3)
一落索 (1) 南鄉子 (5) 踏莎行 (1) 桃源憶故人 (1)

卷下

鷓鴣天 (36) 品令 (1) 浪淘沙 (6) 南柯子 (3) 西江月 (1)
人月圓 (2) 太常引 (5) 眼兒媚 (1) 朝中措 (10) 阮郎歸 (1)
清平樂 (11) 浣溪沙 (11) 後庭花破子 (2) 古烏夜啼 (1) 點絳脣 (8)
訴衷情 (3) 採桑子 (1) 謁金門 (1) 好事近 (1)

3. 元好問『遺山樂府』의 수용: 金時習의 경우

한국의 경우 고려 중엽 이후 조선 전기까지는, ‘詞 = 樂府’ 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詞는 樂章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樂府·樂章·詞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었다. 車柱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를 짓기 시작한 인물은 李齊賢으로, 『益齋亂藁』에 長短句 15調 53篇이 수록되어 있다. 李齊賢과 동시대 인물인 李穀 (1298-1351) 역시 『稼亭集』에 3調 10篇의 사를 남기고 있다. 그밖에 鄭誦 (1309-1345) 1調 8篇, 權近 (1352-1409) 와 權遇 (1363-1419) 형제 1調 10篇, 金時習 (1435-1493) 9調 9篇, 崔演 (1503-1549) 7調 36篇, 金止男 (1559-1631) 4調 4篇, 許筠 (1569-1648) 6調 6篇, 金佺 (1597-1638) 28調 30篇, 安命夏 (1682-1752) 23調 23篇, 柳宜健 (1687-1760) 3調 5篇, 朴昌元 (1683-1753) 11調 12篇, 孟欽堯 (1731-1800) 9調 9篇, 李善吾 (1737-1811) 6調 13篇, 李周禎 (1750-1818) 1調 12篇, 鄭奎漢 (1750-1824) 5調 5篇, 丁若鏞 (1762-1836) 8調 9篇, 孟晚燮 6調 6篇, 趙冕鎬 (1803-1887) 50調 61篇, 都漢基 (1836-1902) 7調 7篇, 金允植 (1835-1922) 20調 20篇 등의 사 작품이 전한다.¹¹

본고에서는 이 중 金時習의 『梅月堂集』 권13 「關東日錄」에 수록된 사 작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關東日錄」은 金時習이 50대에 관동을 유람하면서 남긴 시들을 엮은 것이다. 「關東日錄」에는 「石州慢 (寒松亭)」, 「洞仙歌 (鏡浦)」, 「滿庭芳 (華表柱)」, 「八聲甘州 (白沙汀)」, 「江城子 (洞山館)」 등 5편의 詞 작품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5편의 수록 순서는 元好問 『遺山樂府』 卷中の 첫 번째 작품부터 다섯 번째 작품까지의 수록 순서와 일치한다. 곧 金時習은 元好問 『遺山樂府』의 편차에 따라 일종의 和韻의 형식으로 詞 작품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關東日錄」에는 사 작품이 5수밖에 실려 있지 않지만, 원래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 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石州慢 (寒松亭)」을 살펴보도록 하자. 王奕清 『欽定詞譜』에 의하면 「石州慢」은 『宋史』 「樂志」에 “越調이다. 賀鑄의 詞에 有 ‘長亭柳色才黃’ 句가 있어 「柳色黃」라고 하였고 謝懋의 詞는 「石州引」라고 하였다” 라고 나온다.¹² 賀鑄의 「石州慢」은 雙調 102字, 前段 10句 4仄韻, 後段 11句 5仄韻이다. 이 調는 아래의 詞를 正體로 하며, 蔡松年 · 二張 詞의 攤破한 句法과 王之道 詞의 句讀가 全異한 것은 모두 變格이다. 이 詞의 前後段 兩結句는 의례상 上1 下4의 句法으로 하니, 填者는 이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¹³

『欽定詞譜』에서 正體로 삼은 賀鑄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薄雨催寒，斜照弄晴，春意空闊。長亭柳色才黃，遠客一枝先折。

◎●○○，○●●○，◎●○■。○○◎●○○，◎●◎○○■。

煙橫水際，映帶幾點歸鴉，東風消盡龍沙雪。還記出關時，恰而今時節。

○○◎●，◎◎◎●○○，◎○○●○○■。◎●●○○，●○○○■。

將發。畫樓芳酒，紅淚清歌，頓成輕別。已是經年，杳杳音塵都絕。

○■。●○○●，◎◎◎◎，◎○○■。●●○○，◎●◎○○■。

欲知方寸，共有幾許清愁，芭蕉不展丁香結。枉斷斷天涯，兩厭厭風月。

◎○○●，◎◎◎●○○，◎○○●○○■。◎●●○○，●○○○■。

※○平聲，●仄聲，◎可平可仄，□平韻，■仄韻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元好問의 「石州慢」 2편 중 1 편을 들면 다음과 같다.

「石州慢」【赴召史館，與德新丈別於岳祠西新店，明日以此寄之。】
 擊筑行歌，鞍馬賦詩，年少豪舉。從渠里社浮沈，枉笑人間兒女。
 ●●○○，○●●○，○●○■。○○●●○○，●●○○○■。
 生平王粲，而今憔悴登樓，江山信美非吾土。天地一飛鴻，渺翩翩何許。
 ○○○●，○○○●○○，○○●●○○■。○●●○○，●○○○■。
 羈旅。山中父老相逢，應念此行良苦。幾許虛名，誤卻東家雞黍。
 ○■。○○●●○○，○●●○○■。●●○○，●●○○○■。
 漫漫長路，蕭蕭兩鬢黃塵，騎驢漫與行人語。詩句欲成時，滿西山風雨。
 ○○○●，○○●●○○，○○●●○○■。○●●○○，●○○○■。

그런데 元好問의 「石州慢」은 下段이 賀鑄의 「石州慢」과 같지 않다. 賀鑄의 「石州慢」은 “將發。畫樓芳酒，紅淚清歌，頓成輕別” 로, 2-4-4-4 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元好問의 「石州慢」은 “羈旅。山中父老相逢，應念此行良苦” 의 2-6-6 구로 되어 있는 것이다. 『欽定詞譜』는 賀鑄의 작품을 正體로 삼았지만, 元好問은 蔡松年の 「石州慢」을 따르고 있다. 蔡松年の 「石州慢」은 다음과 같다.

雲海蓬萊，風霧鬢鬢，不假梳掠。仙衣捲盡雲霓，方見宮腰纖弱。
 ○●○○，○●●○，●●○■。○○●●○○，○●○○○■。
 心期得處，世間言語非真，海犀一點通寥廓。無物比情濃，覓無情相博。
 ○○●●，●○○●○○，●○●●○○■。○●●○○，●○○○■。

離索。曉來一枕餘香，酒病賴花醫卻。灑灑金樽，收拾新愁重酌。
 ○■。●○●●○○，●●●○○■。●●○○，○●○○○■。
 片帆雲影，載將無際關山，夢魂應被楊花覺。梅子雨絲絲，滿江干樓閣。
 ●○○●，●○○●○○，●○○●○○■。○●●○○，●○○○■。

元好問의 「石州慢」은 蔡松年の 「石州慢」과 平仄에서 일부 차이를 보인다. 단, 이것은 아래에서 다시 보겠지만, 賀鑄의 「石州慢」을 참고하면 대부분 平仄을 모두 허용하는 곳이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런데 김시습의 「石州慢」은 元好問과 蔡松年の 체식을 따르되 元好問 「石州慢」과 蔡松年 「石州慢」의 平仄이 다른 곳에서, 모두 元好問 「石州慢」을 따라 平仄을 맞추고 있다. 金時習의 「石州慢 (寒松亭)」은 다음과 같다.

十里寒聲，蕭颯高低，吹我耳側。疑聞帝居紅雲，奏彼鈞天廣樂。
 ●●○○，○○●●，○●●■。○○●●○○，●●○○○■。
 生平豪氣，如今添却遊遊，滄波萬頃何遼廓。都是一胸襟，儘教伊吞吐舒縮。
 ○○○●，○○○●○○，○○●●○○■。○●●○○，●○○○●○■。
 窪尊斲石團圓，都是舊時蹤跡。萬古相傳，一任風磨苔剝。
 ○○●●○○，○●●○○■。●●○○，●●○○○■。
 流年如許，跳丸歲月蹉跎，前人視我今猶昔。慷慨發長歌，滿沙汀飛鳴。
 ○○○●，○○●●○○，○○●●○○■。○●●○○，●○○○■。

金時習은 上段 제2구와 제3구에서 元好問의 「石州慢」이 ‘平仄仄平, 平仄平仄’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平仄平仄, 平仄仄仄’으로 하고 있다. 또한 元好問 「石州慢」에서 ‘羈旅’는 下段의 시작이 되지만, 金時習은 이를 誤讀하여 이 두 글자를 上段으로 올려서 사를 지었다. 그 외의 平仄과 押韻에서 金時習은 元好問 「石州慢」의 平仄과 押韻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平仄과 押韻의 사항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賀鑄	薄雨催寒，斜照弄晴，春意空闊。長亭柳色才黃，遠客一枝先折。 ◎●○○，○●●○，◎●○■。◎◎◎●○○，◎●◎○○■。
蔡松年	雲海蓬萊，風霧鬢鬢，不假梳掠。仙衣捲盡雲霓，方見宮腰纖弱。 ○●○○，○●●○，●●○■。○○●●○○，○●○○○■。
元好問	擊筑行歌，鞍馬賦詩，年少豪舉。從渠里社浮沈，枉笑人間兒女。 ●●○○，○●●○，○●○■。○○●●○○，●●○○○■。
金時習	十里寒聲，蕭颯高低，吹我耳側。疑聞帝居紅雲，奏彼鈞天廣樂。 ●●○○，○●●○，○●○■。○○●●○○，●●○○○■。
賀鑄	煙橫水際，映帶幾點歸鴉，東風消盡龍沙雪。還記出關時，恰而今時節。 ○○◎●，◎◎◎●○○，◎◎◎●○○■。◎●●○○，●○○○■。
蔡松年	心期得處，世間言語非真，海犀一點通寥廓。無物比情濃，覓無情相博。 ○○●●，●○○○○，●○●○○■。○●●○○，●○○○■。
元好問	生平王粲，而今憔悴登樓，江山信美非吾土。天地一飛鴻，渺翩翩何許。 ○○○●，○○○●○○，○●●○○■。○●●○○，●○○○■。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金時習	生平豪氣，如今添却遊，滄波萬頃何遼廓。都是一胸襟，儘教伊吞吐舒縮。 ○○○●，○○○●○○，○○●●○○■。○○●○○，●○○○●○■。
賀鑄	將發。畫樓芳酒，紅淚清歌，頓成輕別。已是經年，杳杳音塵都絕。 ○■。●○○●○○，◎◎◎○，◎◎◎■。●●○○，◎●◎○○■。
蔡松年	離索。曉來一枕餘香，酒病賴花醫卻。灑灑金樽，收拾新愁重酌。 ○■。●○○●○○，●●●○○■。●○○○，○●○○○○■。
元好問	羈旅。山中父老相逢，應念此行良苦。幾許虛名，誤卻東家雞黍。 ○■。○○●●○○，○●●○○■。●●○○，●●○○○○■。
金時習	窵尊斲石團圓，都是舊時蹤跡。萬古相傳，一任風磨苔剝。 ○○●●○○，○●●○○■。●●○○，●●○○○○■。
賀鑄	欲知方寸，共有幾許清愁，芭蕉不展丁香結。枉望斷天涯，兩厭厭風月。 ◎○○●，◎◎◎●○○，◎○○●○○■。◎●●○○，●○○○○■。
蔡松年	片帆雲影，載將無際關山，夢魂應被楊花覺。梅子雨絲絲，滿江干樓閣。 ●○○●，●○○●○○，●○○●○○■。○○●○○，●○○○○■。
元好問	漫漫長路，蕭蕭兩鬢黃塵，騎驢漫與行人語。詩句欲成時，滿西山風雨。 ○○○●，○○●●○○，○●●●○○■。○○●○○，●○○○○■。
金時習	流年如許，跳丸歲月蹉跎，前人視我今猶昔。慷慨發長歌，滿沙汀飛鴨。 ○○○●，○○●●○○，○●●●○○■。○○●○○，●○○○○■。

다음으로, 「洞仙歌」는 『欽定詞譜』에 의하면 唐教坊曲名으로 이 調는 令詞과 慢詞가 있다. 令詞는 83자에서 93자, 모두 35수. 康與之 詞는 「洞仙歌令」, 潘昉 詞는 「羽仙歌」, 袁易 詞는 「洞仙詞」라고 이름하였다. 『宋史』 「樂志」에서는 「洞中仙」이라고 이름하였는데, 그 注에 林鐘商調라고 하고 또 歇指調라고 하였다. 『金詞』의 注에서는 大石調라고 하였다. 慢詞는 118자에서 126자, 모두 5수. 柳永 『樂章集』 「嘉景」 詞의 注에서 般涉調라고 하고 「乘興閑泛蘭舟」 詞의 注에서 仙呂調라고 하고 「佳景留心慣」 詞의 注에서 中呂調라고 하였다. 張緘 『詩餘圖譜』를 살펴보면, 前段 6句 3韻, 後段 7句 3韻, 前後段 第3句 모두 7字, 第4句 모두 9字, 前段 結句 6字, 後段 結句 9字로, 이 令詞가 正體이다. 간혹 攤破·添字句·添韻이 있는데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며, 譜의 句讀는 모두 이것에 의거한다.¹⁴

『欽定詞譜』에서 正體로 든 蘇軾의 「洞仙歌」는 雙調83字, 前段 6句 3仄韻, 後段 7句 3仄韻이다.

冰肌玉骨，自清涼無汗。水殿風來暗香滿。

◎○○●，◎◎○○■。◎●○○●○■。

繡簾開、一點明月窺人，人未寢，敲枕釵橫鬢亂。

●○○、◎●◎●○○，◎◎●，◎●◎◎◎■。

起來攜素手，庭戶無聲，時見疏星渡河漢。

◎◎◎◎●，◎●○○，◎●○○●○■。

試問夜如何、夜已三更，金波淡、玉繩低轉。

●◎◎◎◎、◎●○○，◎◎●、◎○○■。

但屈指、西風幾時來，又不道、流年暗中偷換。

◎◎◎、◎◎●○○，◎◎●、○○●○○■。

『欽定詞譜』는 宋人이 「洞仙歌」의 令詞에 填詞한 것은 句讀과 韻脚에 서로 異同이 있는데 오직 蘇軾과 辛棄疾의 兩體은 填詞한 사람이 가장 많으며,¹⁵ 辛棄疾의 詞는 蘇軾의 詞와 동일한데 다만 前段 第4句가 上5 下4 句讀인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하였다.¹⁶ 그런데 元好問의 「洞仙歌」는 蘇軾과 辛棄疾의 詞體가 아닌 京鐘의 詞體를 따르고 있다. 『欽定詞譜』에 따르면 이 詞體는 雙調 85字, 前段 6句 3仄韻, 後段 7句 4仄韻으로, 前段은 辛棄疾의 詞와 같고 後段은 阮閱은 詞와 같다. 京鐘의 「洞仙歌」와 원호문 「洞仙歌」 2수 중 제1수를 나란히 들면 다음과 같다.

京鐘

東皇著意，妙出妝春手。點綴名花勝於繡。

○○●●，●●○○■。●●○○●○■。

向魚鳧國裏，琴鶴堂前，仍共賞，蜀錦堆紅炫晝。

●○○●●、○●○○，○●●，●●○○●■。

妖嬈真豔豔，儘是天然，莫恨無香欠檀口。

○○○●●，●●○○，●●○○●○■。

幸今年風雨、不苦摧殘，還肯爲、遊人再三留否。

●○○○●、●●○○，○●●、○○●○○■。

算魏紫姚黃、號花王，若定價收名、未應居右。

●●●○○、●○○，●●●○○、●○○■。

元好問

靑錢白璧，自買愁腸繞。更恨歡狂負年少。

○○●●，●●○○■。●●○○●○■。

記陽關圖上、尊酒留連，兒女淚，輸與閒人坐釣。

●○○○●、○●○○，○●●，○●○○●■。

茂陵多病後，懶盡琴心，無複求凰與同調。

●○○●●，●●○○，○●○○●○■。

似清風古殿、風動幡搖，晴晝永、惟有龕燈靜照。

●○○●●、○●○○，○●●、○●○○●■。

雙胡蝶飛來、澹無情，問牆脚戎葵、爲誰凝笑？

○○●○○、●○○，●○●○○、●○○■。

마찬가지로 元好問의 「洞仙歌」은 京鎧의 「洞仙歌」과 平仄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蘇軾의 「洞仙歌」를 참고하면 平仄을 모두 허용하는 곳이다. 김시습이 鏡浦를 주제로 지은 「洞仙歌(鏡浦)」는 다음과 같다. 김시습의 『梅月堂集』에 전하는 「洞仙歌(鏡浦)」는 下段의 제 3 구에서 4자가 缺落되어 있다.

靑樽白髮，畫舸汀洲遠。嫌却皇華負年少。

○○●●，●●○○■。○●○○●○■。

記前朝舊事、一段風流，都是夢，輸與人間一笑。

●○○●●、●●○○，○●●，○●○○●■。

琉璃千頃碧，極浦孤山，閑坐釣□□□□。(4字缺)

○○○●●，●●○○，○●●

更玉輦金輿、法駕東巡，絲管鬧、羽葆幢旗前導。

●●●○○、●●○○，○●●、●●○○○■。

作千古閑談、付漁樵，問亭畔雲霞、爲誰繚繞？

●○●○○、●○○，●○●○○、●○○■。

김시습의 「洞仙歌」는 京鏜과 元好問의 체식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 仄이 다른 곳이 발견된다. 이것은 蘇軾의 「洞仙歌」를 참고하면 仄仄을 모두 허용하는 곳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원호문의 詞를 모범으로 하면서 평측을 맞추지 못한 것인지, 혹은 蘇軾의 詞를 함께 참고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원호문 「洞仙歌」에서 사용된 어휘를 여러 곳에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호문 「洞仙歌」는 상단 제1구를 ‘靑錢白璧’으로 하고 제3구를 ‘負年少’으로 마쳤는데, 김시습은 상단 제1구를 ‘靑樽白髮’으로 시작하여 제3구를 마찬가지로 ‘負年少’으로 마치고 있다. 또한 제4구를 두 작품이 모두 ‘記’로 시작하고 있으며, 상단의 마지막 구를 원호문은 ‘輸與閒人坐釣’로 하고 김시습은 그와 비슷하게 ‘輸與人間一笑’로 하고 있다. 하단의 마지막 2구를 원호문은 ‘問牆角戎葵，爲誰凝笑’라고 하여 질문으로 작품을 끝맺었는데, 김시습 역시 ‘問亭畔雲霞，爲誰繚繞’라고 하여 질문으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김시습의 이 詞는 경포대를 바라보며 前朝의 옛 일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는 무상감을 주제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은 원호문의 詞와 같지 않지만, 원호문의 詞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蘇軾	冰肌玉骨，自清涼無汗。水殿風來暗香滿。 ◎○○●，◎○○○■。◎●○○●○■。
京鏜	東皇著意，妙出妝春手。點綴名花勝於繡。 ○○●●，●●○○■。●●○○●○■。
元好問	靑錢白璧，自買愁腸繞。更恨歡狂負年少。 ○○●●，●●○○■。●●○○●○■。
金時習	靑樽白髮，畫舸汀洲遠。嫌却皇華負年少。 ○○●●，●●○○■。○●○○●○■。
蘇軾	繡簾開、一點明月窺人，人未寢，敲枕釵橫鬢亂。 ●○○、◎●◎●○○，◎◎●，◎●◎○○■。
京鏜	向魚鳧國裏，琴鶴堂前，仍共賞，蜀錦堆紅炫晝。 ●○○●●、○●○○，○●●，●●○○●○■。
元好問	記陽關圖上，尊酒留連，兒女淚，輸與閒人坐釣。 ●○○○●、○●○○，○●●，○●○○●○■。
金時習	記前朝舊事，一段風流，都是夢，輸與人間一笑。 ●○○●●、●●○○，○●●，○●○○●○■。
蘇軾	起來攜素手，庭戶無聲，時見疏星渡河漢。 ◎◎○○●，◎●○○，◎●○○●○■。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京鐘	妖嬈真豔豔，儘是天然，莫恨無香欠檀口。 ○○○●●，●●○○，●●○○○●■。
元好問	茂陵多病後，懶盡琴心，無複求凰與同調。 ●○○●●，●●○○，○●○○○●●■。
金時習	琉璃千頃碧，極浦孤山，閑坐釣□□□□。(4字缺) ○○○●●，●●○○，○●●
蘇軾	試問夜如何、夜已三更，金波淡、玉繩低轉。 ●◎◎◎◎、◎●○○，◎◎●、◎◎◎■。
京鐘	幸今年風雨、不苦摧殘，還肯爲、遊人再三留否。 ●○○○●、●●○○，○●●、○○●○○■。
元好問	似清風古殿、風動幡搖，晴晝永、惟有龕燈靜照。 ●○○●●、○●○○，○●●、○●○○●■。
金時習	更玉輦金輿、法駕東巡，絲管鬧、羽葆幢旗前導。 ●●●○○、●●○○，○●●、●●○○○■。
蘇軾	但屈指、西風幾時來，又不道、流年暗中偷換。 ◎◎◎、◎◎●○○，◎◎●、○○●○○■。
京鐘	算魏紫姚黃、號花王，若定價收名、未應居右。 ●●●○○、●○○，●●●○○、●○○■。
元好問	雙胡蝶飛來、澹無情，問牆脚戎葵，爲誰凝笑? ○○●○○、●○○，●●○○○，●○○■。
金時習	作千古閑談、付漁樵，問亭畔雲霞，爲誰繚繞? ●○○○○、●○○，●●○○○，●○○■。

다음으로 「滿庭芳」은 『欽定詞譜』에 의하면 平韻과 仄韻의 兩體가 있으며, 이 調는 晏幾道와 周邦彥의 詞를 正體로 한다. 晏幾道の 詞는 雙調 95字, 前後段 各10句, 4平韻, 周邦彥의 詞는 雙調 95字, 前段 10句 4平韻, 後段 11句 5平韻이다. 黃公度 詞에서 글자 수를 줄이거나, 程垓·趙長卿·元好問의 詞에서 글자 수를 늘린 것, 無名氏의 사에서 轉調한 것은 모두 變體이다. 이 晏幾道 詞는 換頭句에서 短韻을 감추고 있지 않은데, 宋·元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填詞한 경우도 많다.¹⁷ 元好問의 詞는 換頭句에서 短韻을 감춘 周邦彥의 詞에 填詞하였다. 晏幾道, 周邦彥, 元好問의 詞를 순서대로 들면 다음과 같다.

晏幾道

南苑吹花，西樓題葉，故園歡事重重。憑欄秋思，閑記舊相逢。

◎●○○，◎○○●，◎○○●○□。◎○○●，◎●●○□。

幾處歌雲夢雨，可憐便、流水西東。別來久，淺情未有，錦字繫征鴻。
 ◎●◎○○●，◎◎●、◎●○○□。◎○○，◎○○●，◎●●○○□。
 年光還少味，開殘檻菊，落盡溪桐。漫留得，樽前淡月西風。
 ◎○○●●，◎○○●，◎●○○□。●◎◎，◎○○●○○□。
 此恨誰堪共說，清愁付、綠酒杯中。佳期在，歸時待把，香袖看啼紅。
 ◎●◎○○●，◎◎●、◎●○○□。○○●，◎○○●，◎●●○○□。

周邦彥

風老鶯雛，雨肥梅子，午陰嘉樹清圓。地卑山近，衣潤費爐煙。
 ○●○○，●○○●，●○○●○○□。●○○●，○●●○○□。
 人靜鳥鶯自樂，小橋外、新綠濺濺。憑欄久，黃蘆苦竹，擬泛九江船。
 ○●○○●●，●○○、○●○○□。○○●，○○●●，●●●○○□。

年年。如社燕，飄流瀚海，來寄修椽。且莫思身外，長近樽前。
 ○□。○●●，○○●●，○●○○□。●●○○●，○●○○□。
 憔悴江南倦客，不堪聽、急管繁弦。歌筵畔，先安枕簟，容我醉時眠。
 ○●○○●●，●○○、●●○○□。○○●，○○●●，○●●○○□。

元好問

妝鏡韶華，牙籤名品，慣看培養經年。何年曾見，槁葉散芳妍？
 ○●○○，○○○●，●○○●○○□。○○○●，●●●○○□。
 知是毗耶坐客，三生夢、猶有情緣。薰香手，融霞暈雪，來占百花前。
 ○●○○●●，○○●、○●○○□。○○●，○○●●，○●●○○□。

嫣然。誰爲笑，珠圍翠繞，且共留連。待詩中偷寫，畫裏真傳。
 ○□。○●●，○○●●，●●○○□。●○○○●，●●○○□。
 繡帽擁霜凝紫塞，瓊肌瑩、春滿溫泉。新聲在，梁園異事，並記玉堂仙。
 ●●○○○●●，○○●、○●○○□。○○●，○○●●，●●●○○□。

그런데 元好問의 詞는 換頭句에 短韻을 감춘 周邦彥의 詞에 填詞하고 있으면서 下段의 제7구가 7자로 되어 있어, 하단 제7구가 6자인 周邦彥의 詞보다 1자가 많다. 周邦彥의 詞를 正體로 하는 變體 중에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서 하단 제7구가 7자인 것은 『欽定詞譜』에는 보이지 않는다. 『欽定詞譜』에 수록되어 있는 元好問의 다른 詞는 雙調 96字, 前後段 각 10句, 4平韻으로, 晏幾道の 詞와 같되, 前後段 第4·5句가 모두 4字·5字로 되어 있고 後段 第8句에 襯字 하나가 첨가된 것이 다르다. 하지만 『遺山樂府』 수록의 元好問 詞는 이 詞와 체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런데 金時習의 사는 제7구가 7자인 『遺山樂府』 수록의 元好問의 詞體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金時習의 「滿庭芳(華表柱)」는 다음과 같다.

人世繁華，倏如星轉，暫時笑語悲歡。千年城郭，民物遞凋殘。
○○○○，●○○●，●○○●○□。○○○●，○●●○□。
常見紅塵萬丈，令人老、苦樂千般。唯華表，撐空獨立，長閱古今顏。
○○○○●●，●○○、●●○□。○○●，○○●●，○●●○□。

縱橫城裏道，榆柳蔭傍，行旅盤桓。逢鄉人指點，何代幡竿。
●○○●●，○●●○，○●○□。○○○●●，○●○□。
牛礪角樵章擊火，苔花暈碧點成斑。遼東客，何年化鶴，來語歎人間。
○●●○○●●，○○●●●○□。○○●，○○●●，○●●○□。

金時習은 元好問의 「滿庭芳」을 체식으로 하였지만, 元好問의 詞가 하단의 換頭句에서 ‘嫣然’ 이라고 하여 短韻을 감춘 것과 달리 압운을 넣지 않았다. 또한 元好問의 詞는 하단 제 8 구 중간에 讀를 끊었지만 金時習의 사는 讀를 끊지 않았다.

이어서 「八聲甘州」는 『欽定詞譜』에 따르면, 『碧雞漫志·甘州』에 仙呂調는 曲破, 八聲, 慢, 令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調는 前後段이 8韻이어서 「八聲」이라고 하며, 곧 慢詞로 「甘州遍」의 曲破와 「甘州子」의 令詞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¹⁸ 또한 柳永의 아래 詞가 正體이며 張炎의 詞에서 글자를 더한 것이나 劉過 이하 다섯 詞에서 글자 수를 줄인 것은 모두 變體이다.¹⁹ 柳永의 詞는 雙調 97字, 前後段 각 9句, 4平韻이다. 『欽定詞譜』에 인용된 柳永의 詞는 다음과 같다.

對瀟瀟暮雨灑江天，一番洗清秋。漸霜風淒緊，關河冷落，殘照當樓。
●○○○●●○○，○○●○□。●○○○●，○○○●，○●○□。

是處紅衰翠減，苒苒物華休。惟有長江水，無語東流。

◎●◎○○●，◎●●○○□。◎●◎○○●，◎●○○□。

不忍登高臨遠，望故鄉渺渺，歸思難收。歎年來蹤跡，何事苦淹留。

◎●◎○○●，●◎○○●，◎●○○□。●◎○○●，◎●●○○□。

想佳人、妝樓長望，誤幾回、天際識歸舟。爭知我、倚欄杆處，正恁凝愁。

●◎◎、◎●◎●，●◎○、◎●●○○□。○○●、◎○○●，◎●○○□。

『遺山樂府』에 수록된 元好問의 詞는 2수로, 2수 모두 柳永의 사체를 따르고 있으나 제1수는 상단 제5구가 柳永의 詞가 4자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5자로 되어 있다. 또한 柳永의 詞는 상단 제 1 구가 ‘仄中平中仄仄平平’ 인데 비해 元好問의 2수는 모두 ‘仄平平平平仄平平’ 으로 되어 있고, 하단 제6구가 ‘仄中中中仄仄仄’ 인데 비해 ‘仄仄平平平平仄仄’ 으로 되어 있어 平仄이 같지 않다. 元好問의 「八聲甘州」 2수를 들면 다음과 같다.

許君祠、層崖上崢嶸，幽林入清深。坐嵩丘少室，風煙濃淡，百態變晴陰。

●○○、○○●○○，○○●○○□。●○○●●●，○○○●●，●●●○○□。

山下一溪流水，不受是非侵。寂寞懸瓢地，黃屋無心。

○○○○●●●，●●●○○□。●●○○●●，○●○○□。

木杪嶮峩石塚，見人間幾度，夕鼎朝鍬。問五兵誰作，天地更生金。

●●○○●●●，●○○●●●，●●○○□。●○○○○●，●●●○○□。

百年來、神州萬里，望浮雲、西北淚沾襟。青山好、一尊未盡，且共登臨。

●○○、○○●●●，●○○、○●●○○□。○○●、●○○●●，●●○○□。

又

玉京巖龍香海南來，霓裳月中傳。有六朝圖畫，朝朝瓊樹，步步金蓮。

●○○○○●○○，○○●○○□。●●○○●●，○○○●●，●●●○○□。

明滅重簾畫燭，幾處鎖嬋娟。塵暗秦王女，秋扇年年。

○○○○●●●，●●●○○□。○●○○●●，○●○○□。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一枕繁華夢覺，問故家桃李，何許爭妍。便牛羊丘壘，百草動蒼煙。
 ●●○○●●，●●○○●，○○○□。●○○○●，●●●○○。
 更誰知、昭陽舊事，似天教、通德見伶玄。春風老、擁鬢顰黛，寂寞燈前。
 ●○○、○○●●，●○○、○●●○○□。○○●、●○○●，●●○○□。

金時習의 「八聲甘州(白沙汀)」은 『遺山樂府』에 수록된 元好問의 2수 중 상단 제5구가 4자로 되어 있는 제2수를 따랐다. 金時習의 「八聲甘州(白沙汀)」은 다음과 같다.

金時習, 「八聲甘州(白沙汀)」
 海無垠沙汀白晴光，濛濛射殘輝。見雙雙白鷗，浮沈波際，咬嘎爭飛。
 ●○○○○●○○，○○●○○□。●○○○●，○○○●，●●○○□。
 何處漁舟未返，長笛一聲歸。不管人間世，心事相違。
 ○●○○●●，○●●○○□。●●○○●，○●○○□。

我本風流宕客，謝浮生毀譽，得失幾微。探江湖風月，到處更依依。
 ●●○○●●，●○○●●，●●○○□。●○○○●，●●●○○□。
 望那邊、滄波萬頃，顧這般、身影淚沾衣。韶光暮底心獻賦，獨侍丹墀。
 ●●○、○○●●，●●○、○●●○○□。○○●●○○●●，●●○○□。

그런데 金時習의 「八聲甘州(白沙汀)」는 앞서 언급한, 柳永의 詞와 元好問의 詞에서 平仄이 다른 두 곳은 元好問 詞의 平仄을 모두 따르되, 可平可仄의 자리에 있어서는 元好問의 제1수를 거의 따르고 있다. 곧, 金時習은 『遺山樂府』 수록 元好問 「八聲甘州」 제2수의 詞體를 바탕으로 하면서 제1수를 따라 平仄과 押韻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平仄과 押韻의 사항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柳永	對瀟瀟暮雨灑江天，一番洗清秋。漸霜風淒緊，關河冷落，殘照當樓。 ●◎◎◎●●○○，◎◎◎○○□。●◎◎◎●，◎◎◎●，◎●○○□。
元好問1	許君祠層崖上崢嶸，幽林入清深。坐嵩丘少室，風煙濃淡，百態變晴陰。 ●○○○○●○○，○○○○□。●○○●●，○○○●，●●●○○□。
元好問2	玉京巖龍香海南來，霓裳月中傳。有六朝圖畫，朝朝瓊樹，步步金蓮。 ●○○○○●○○，○○○○□。●○○○○，○○○●，●●○○□。

金時習	海無垠沙汀白晴光，濛濛射殘輝。見雙雙白鷗，浮沈波際，咬嘎爭飛。 ●○○○●○○，○○●○□。●○●●●，○○○●，●●●○□。
柳永	是處紅衰翠減，苒苒物華休。惟有長江水，無語東流。 ◎●◎○◎●，◎●●○□。◎●◎○●，◎●●○□。
元好問1	山下一溪流，不受是非侵。寂寞懸瓢地，黃屋無心。 ○●○○●●●，●●●○□。●●●○●，○●●○□。
元好問2	明滅重簾畫燭，幾處鎖嬋娟。塵暗秦王女，秋扇年年。 ○●○○●●●，●●●○□。○●○○●，○●○○□。
金時習	何處漁舟未返，長笛一聲歸。不管人間世，心事相違。 ○●○○●●●，○●●○□。●●○○●，○●○○□。
柳永	不忍登高臨遠，望故鄉渺渺，歸思難收。歎年來蹤跡，何事苦淹留。 ◎●◎○◎●，◎●◎◎●，◎●○□。●◎○◎●，◎●●○□。
元好問1	木杪嶺岒石塚，見人間幾度，夕鼎朝鋸。問五兵誰作，天地更生金。 ●●○○●●●，●○●●●，●●○□。●○○○●，●●●○□。
元好問2	一枕繁華夢覺，問故家桃李，何許爭妍。便牛羊丘壘，百草動蒼煙。 ●●○○●●●，●●○○●，○●○□。●○○○●，●●●○□。
金時習	我本風流宕客，謝浮生毀譽，得失幾微。探江湖風月，到處更依依。 ●●○○●●●，●○○●●，●●○□。●○○○●，●●●○□。
柳永	想佳人、妝樓長望，誤幾回、天際識歸舟。爭知我、倚欄杆處，正恁凝愁。 ●◎◎、◎●◎●，●◎○、◎●●○□。○○●、◎○◎●，◎●●○□。
元好問1	百年來、神州萬里，望浮雲、西北淚沾襟。青山好、一尊未盡，且共登臨。 ●○○、○●●●，●○●、○●●○□。○○●、●○●●，●●●○□。
元好問2	更誰知、昭陽舊事，似天教、通德見伶玄。春風老、擁鬢顰黛，寂寞燈前。 ●○○、○●●●，●○●、○●●○□。○○●、●○●●，●●●○□。
金時習	望那邊、滄波萬頃，顧這般、身影淚沾衣。韶光暮、底心獻賦，獨侍丹墀。 ●●○、○●●●，●●○、○●●○□。○○●、●○●●，●●●○□。

마지막으로 「江城子」는 『欽定詞譜』에 따르면 唐詞는 單調로 韋莊의 詞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韋莊의 詞에 비추어 添字한 것인데, 宋人에 이르러 처음으로 雙調를 지었다고 한다.²⁰ 元好問과 金時習의 詞는 모두 雙調로, 蘇軾의 詞를 體式으로 하였다. 蘇軾의 詞는 다음과 같다.

鳳凰山下雨初晴。水風清。晚霞明。一朵芙蓉、開過尚盈盈。
◎○◎●●○□。●○□。●○□。◎●◎○、◎●●○□。
何處飛來雙白鷺。如有意。慕娉婷。
◎●◎○○●●。○◎●。●○□。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忽聞江上弄哀箏。苦含情。遣誰聽。煙斂雲收、依約是湘靈。
 ◎○○●●○□。●○□。●○□。◎●◎○、◎●●○□。
 欲待曲終尋問取。人不見。數峰青。
 ◎●◎○○●●。○◎●。●○□。

『欽定詞譜』에 따르면 이 詞의 兩段은 모두 韋莊의 體式에 填詞한 것으로, 안쪽 第4句의 平仄은 張泌 ‘飛絮落花’ 句의 體式에 填詞한 것이다. 宋詞를 자세히 살펴보면 可平可仄의 異同이 심하지 않은데, 오직 秦觀 詞의 前結 ‘雖同處, 不同枝’ 과 後結 ‘重相見, 是何時’, 그리고 方嶽 詞의 前段 第4句에서 ‘幾雨幾晴, 做得這些春’ 라고 하고 後段 第4句에서 ‘吹得酒痕, 如洗一番新’ 라고 한 것은 平仄이 약간 다르다. 나머지는 다만 七言句의 第1字·第3字, 9言句의 第1字·第5字가 대개 구애되지 않는다. 黃庭堅에게 仄韻 「江城子」 詞가 있는데, 그 字句는 蘇軾 詞와 동일하며, 오직 韻腳을 仄聲으로 고쳤을 뿐이다.²¹

『遺山樂府』에는 「江城子」 14수가 실려 있는데 金時習의 「江城子(洞山館)」은 이 중 제 8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元好問의 詞는 제목에 “嵩山中作” 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元好問과 金時習의 「江城子」를 나란히 들면 다음과 같다.

元好問, 「江城子」

衆人皆醉屈原醒, 笑劉伶。酒爲名。不道劉伶、久已笑螟蛉。
 ●○○●●○□, ●○□。●○□。●●○○、●●●○□。
 死葬糟邱殊不惡, 緣底事, 赴清冷。
 ●●○○○●●, ○●●, ●○□。

醉鄉千古一升平, 物忘情。我忘形。相去羲皇、不到一牛鳴。
 ●○○●●○□, ●○□。●○□。○●○○、●●●○□。
 若見三閭憑寄語, 尊有酒, 可同傾。
 ●●○○○●●, ○●●, ●○□。

金時習, 「江城子(洞山館)」

海濱孤館接滄溟。倚風櫺。望蓬瀛。浩渺滄波、數點白鷗輕。

●○○●●○□。●○□。●○□。●●○○、●●●○□。

物外浮沈渠似我，渠不競，我忘形。

●●○○○●●，○●●，●○□。

異鄉千里影伶俜。鬢星星。眼青青。怪底乾坤、身世一長亭。

●○○●●○□。●○□。●○□。●●○○、●●●○□。

若見安期煩寄語，千日酒，與君傾。

●●○○○●●，○●●，●○□。

元好問의 「江城子」는 술을酷好하였던 劉伶을 소재로 하여, 醉鄉이야말로 영원한 태평성세이자 太古의 순박함에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약 屈原을 만난다면 그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는 말을 그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반면 金時習의 「江城子」는 洞山館에서 바람부는 난간에 기대어 홀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다 위의 갈매기들이 物外에서 浮沈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형체를 잊고서 物外에서 노닐고 있는 자신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異鄉 천리에서 홀로 외로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니 백발이 되었어도 눈동자만은 푸르디 푸르는데, 어찌하여 하나의 長亭과 같은 天地 간에 부처 사는 신세가 되었는지, 만약 安期生을 만난다면 千日酒를 함께 기울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였다.

두 작품은 함께 술을 주요 소재로 하면서 『莊子』의 ‘忘情’과 ‘忘形’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하단의 제5~7구를 각각 “若見三閭憑寄語，尊有酒，可同傾”과 “若見安期煩寄語，千日酒，與君傾”라고 하여 비슷한 구문과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다. 하지만 元好問에 있어 술은 醉鄉에 들어 物我一體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지만, 金時習에게 있어 술이란 異鄉에서의 고독감을 잊고 세상의 얽매임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金時習은 천지간의 방랑자가 되어 바닷가의 백구들과 짝하면서 나 자신의 형체를 잊는 ‘忘形’의 경지에 도달하였지만, 자신의 그림자처럼 되어 끝내 벗어날 수 없는 내면 깊은 곳의 고독감과, 자신이 부처 살고 있기에 살아있는 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얽매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임을, 安期生과 함께 千日酒를 기울임으로써 모두 벗어던지고서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하였다.

4. 나오며

이상 본고는 元好問『遺山樂府』이 조선에서 간행된 사실과 그 영향을 金時習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李宗準은 『遺山樂府』를 晉州에서 간행할 때 작성한 「遺山樂府詩跋」에서 陳師道와 李清照가 蘇軾의 詞 작품이 詩로 詞를 지은 것 [以詩爲詞] 이라고 비평한 사실, 詩文은 仄仄만을 구분하지만 詞는 五音과 五聲을 구분하고 六律을 구분하여, 清濁과 輕重이 모두 조화로운 후에야 入腔할 수 있다는 사실, 조선인이 詞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高麗歌謠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조선 문인으로서 詞 문학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다. 이는 거꾸로, 조선 문인으로서 詞를 능수능란하게 지은 이가 매우 드물었음을 말해 준다.李宗準은 오직 李齊賢만이 忠宣王을 入侍하여 閻復·趙孟頫 등 중국의 學士들과 從游하면서 사를 지을 줄 알았으며, 이는 東方에서 매우 드문 사례가 된다고 하였다.

고려말 조선초의 인물로서 한국에서 詞 작품을 남긴 문인으로는 李齊賢, 李穀, 鄭誦, 權近, 權遇, 金時習, 崔演, 金止男, 許筠, 金佺 등이 있으며 본고는 이 중 金時習의 『梅月堂集』 권13 「關東日錄」에 수록된 사 작품을 대상으로 元好問『遺山樂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金時習 「關東日錄」에는 「石州慢(寒松亭)」, 「洞仙歌(鏡浦)」, 「滿庭芳(華表柱)」, 「八聲甘州(白沙汀)」, 「江城子(洞山館)」 등 5편의 詞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 5편의 수록 순서는 元好問『遺山樂府』 卷中の 첫 번째 작품부터 다섯 번째 작품까지의 수록 순서와 일치한다. 곧 金時習은 元好問『遺山樂府』의 편차에 따라 일종의 和韻의 형식으로 詞 작품을 지었음을 알 수 있으며, 「關東日錄」에는 본디 5편보다 많은 詞 작품이 수록되어 있었을 것을 추정하게 한다.

金時習의 「石州慢(寒松亭)」은 『欽定詞譜』에서 正體로 삼은 賀鑄의 詞體를 따르지 않고 元好問 「石州慢」을 따라 仄仄을 맞추었으며, 「洞仙歌(鏡浦)」는 元好問 「洞仙歌」에서 사용된 어휘와 구문을 여러 곳

에서 답습하고 있다. 또한 元好問의 「滿庭芳」은 周邦彥의 詞를 正體로 하면서도 하단 제7구가 7자로 되어 있는데 金時習 역시 「滿庭芳(華表柱)」에서 元好問의 이 體를 그대로 본받았으며, 「八聲甘州(白沙汀)」에서는 『遺山樂府』 수록 元好問 「八聲甘州」 제2 수의 사체를 바탕으로 하면서 제1수를 따라 平仄과 押韻을 하였다.

한편, 金時習 「江城子(洞山館)」는 『遺山樂府』에 수록된 「江城子」 14수 중 제8수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두 작품은 함께 술을 주요 소재로 하면서 『莊子』의 ‘忘情’ 과 ‘忘形’ 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하단의 제5~7구를 비슷한 구문과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다. 다만 주제에 있어, 元好問은 술을 마심으로써 物我가 一體가 되는 醉郷에 들고자 함을 노래하였지만, 金時習은 술을 마심으로써 異郷에서의 고독감과 세상의 얽매임을 벗어던지고서 영원한 자유를 얻고자 하였다. 곧, 金時習은 元好問 詞의 詞體와 소재 등을 참고하여 詞를 지으면서도 이를 點化하여 자신만의 詞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유산악부』 외에 원호문의 문집 『元遺山集』은 傳本이 보고된 바 없고 그 독서 흔적 역시 직접 드러난 것은 없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고려말에는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권근을 비롯한 일정한 범위의 문인들에 의해 향유되고 시문 창작에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김시습의 시 중에 원호문의 시에서 보이는 시어나 시적 표현을 사용한 구절이 종종 확인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서적 출판이 원대의 출판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의 문단 역시 금원대의 문학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다만 이러한 문학 수용의 양상은 조선 전기 문인들의 문학 작품에 숨겨진 금원대 시문의 소재나 시어, 표현이나 의상 등을 통해 거꾸로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조선 전기의 문단에 끼친 금원대 문학의 향유 양상과 문학 창작에서의 활용 양상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본고는 「조선전기 元好問 『遺山樂府』의 수용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45 (우리漢文學會, 2021.12.31. pp. 43~78) 에도 수록되어 있다.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 1차 자료 및 논저

元好問, 『遺山樂府』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請求記號: 고서(귀) 293 0)

元好問, 『遺山樂府』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請求記號: 고서(귀) 810 0)

元好問, 『遺山樂府』 (하버드대학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본, 請求記號: TK 5237.5 1147)

金時習, 『梅月堂集』, 亞細亞文化社 影印, 1973.

김진경, 『韓國 辭賦의 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尹浩鎭, 「中國의 詩歌理論이 韓國의 漢詩論에 미친 影響: 晉州本 『遺山樂府』의 跋을 中心으로」, 『東方漢文學』 13, 동방한문학회, 1997.

車柱環, 「遺山樂府 연구」. 『동방학지』 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6.

車柱環, 「韓國詞文學研究」, 『亞細亞研究』 15-19,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1966.

•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조선왕조실록 DB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한국문집총간 DB (<https://db.itkc.or.kr/>)

搜韻網 (<https://sou-yun.cn/index.aspx>)

注

- 1 南孝溫,「冷話」,『秋江集』卷7 雜著:東峯金時習,讀書不拘文義,見大旨,味大義而已。余嘗作「征夫怨」十絕,和元遺山詩,其一篇曰:“白草凋霜月滿空,年年鞍馬任西東。令嚴萬幕平沙夜,部伍相招鼓角中。”東峯見而失笑曰:“措大誤矣。豈有令嚴之時,復有相招之事乎?”取詩小雅以示余,有曰:“之子于征,有聞無聲。允矣君子,展也大成。”余深服其言。歸而告于餘慶,餘慶嘆曰:“東峯讀書,最好最好。”
- 2 金時習,「山居集句」【百首】其二十六,『梅月堂詩集』卷7 詩○山居集句。
- 3 한국 국내에는 康熙·光緒 연간에 간행한 『元遺山先生文集』이 몇몇 기관에 산전한다.
- 4 權近,「題盾谷李公書室」,『陽村文集』卷7 南行錄。
- 5 車柱環,「遺山樂府연구」,『동방학지』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6.
- 6 尹浩鎭,「中國의 詩歌理論이 韓國의 漢詩論에 미친 影響: 晉州本『遺山樂府』의 跋을 中心으로」,『東方漢文學』13, 동방한문학회, 1997.
- 7 『成宗實錄』卷285, 成宗24年 12월 28일 (1493, 弘治6年): 弘文館副提學金諶等上劄子曰:“伏聞, 頃者李克墩爲慶尙監司·李宗準爲都事時, 將所刊『西陽雜俎』·『唐宋詩話』·『遺山樂府』及『破閑』·『補閑集』·『太平通載』等書以獻, 旣命藏之內府, 旋下『唐宋詩話』·『破閑』·『補閑』等集, 令臣等略註歷代年號人物出處以進. [...]”
- 8 車柱環,「遺山樂府연구」,『동방학지』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6.
- 9 車柱環,「遺山樂府연구」,『동방학지』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6.
- 10 李宗準,「遺山樂府詩跋」,『慵齋先生遺稿』雜著。
- 11 車柱環,「韓國詞文學研究」,『亞細亞研究』15-19,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1964-1966.
- 12 『宋史』「樂志」:“越調。賀鑄詞有‘長亭柳色才黃’句, 名‘柳色黃’, 謝懋詞, 名‘石州引’。
- 13 雙調一百二字, 前段十句四仄韻, 後段十一句五仄韻。此調以此詞爲正體, 若蔡詞·二張詞之攤破句法, 王詞之句讀全異, 皆變格也。此詞前後段兩結句,

朝鮮前期 元好問『遺山樂府』의 受容에 대하여:

金時習의 예를 중심으로

例作上一下四句法，填者辨之。

14 唐教坊曲名。此調有令詞，有慢詞。令詞自八十三字至九十三字，共三十五首。康與之詞，名「洞仙歌令」；潘昉詞，名「羽仙歌」；袁易詞，名「洞仙詞」；『宋史』「樂志」，名「洞中仙」，注林鐘商調，又歇指調；『金詞』注大石調。慢詞自一百十八字至一百二十六字，共五首。柳永『樂章集』「嘉景」詞注般涉調，「乘興閑泛蘭舟」詞注仙呂調，「佳景留心慣」詞注中呂調。按，張綖『詩餘圖譜』，前段六句三韻，後段七句三韻，前後段第三句俱七字，第四句俱九字，前段結句六字，後段結句九字，此令詞正體也，間有攤破·添字句·添韻者，皆從此出，譜中句讀悉據之。

15 宋人填「洞仙歌」令詞者，句讀韻腳，互有異同，惟蘇·辛兩體，填者最多，今以蘇·辛二詞爲初體，其餘添字·減字，各以類聚，庶不蒙混。

16 此與蘇詞同，惟前段第四句作上五下四句讀小異。宋詞如此填者甚多。

17 此調有平韻·仄韻兩體。[……]此調以此詞及周詞爲正體，若黃詞之減字，程、趙、元三詞之添字，與無名氏詞之轉調，皆變體也。此詞換頭句不藏短韻，宋·元人如此填者亦多。

18 『碧雞漫志·甘州』，仙呂調，有曲破，有八聲，有慢，有令。按，此調前後段八韻，故名「八聲」，乃慢詞也，與「甘州遍」之曲破，「甘州子」之令詞不同。

19 此調以此詞爲正體，若張詞之添聲，劉過以下五詞之減字，皆變體也。

20 唐詞單調，以韋莊詞爲主，餘俱照韋詞添字，至宋人始作雙調。

21 此詞兩段，俱照韋莊體填。內第四句，平仄乃照張泌「飛絮落花」句體填。細查宋詞，其可平可仄，不甚異同。惟秦觀詞，前結「雖同處，不同枝」，後結「重相見，是何時」，又方嶽詞，前段第四句云「幾雨幾晴，做得這些春」、後段第四句云「吹得酒痕，如洗一番新」，平仄略爲小異。餘只七言句，第一字·第三字，九言句第一字·第五字，大概不拘也。按，黃庭堅有仄韻「江城子」詞，其字句與蘇詞同，惟韻腳改爲仄聲耳。因詞俚不錄。



魯 耀 翰 (Johann Noh)

高麗大学校漢字漢文研究所研究教授。主に文献学、韓国漢文学等について研究を行っている。主な論文に、「安平大君『匪懈堂選半山精華』の編纂と注解方法」(『漢文学論集』59、2021)、「竜飛御天歌の典據と注解の文献学的研究」(『語文研究』49-1、2021)、「金允植(号：雲養)と日本人官僚・文文学者の詩文唱和について—『雲養集』所収『東槎謾吟』と『芝城山館納涼唱和集・輕妙唱和集』を中心に」(『立命館アジア・日本研究學術年報』創刊号、2020)、「白川静先生の興研究と『杜律虞注』の興説について」(『立命館白川静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紀要』10、2017)等がある。

高麗大学汉字汉文研究所研究教授。主要研究文献学、韩国汉文学等。主要论文有：《安平大君〈匪懈堂选半山精华〉的编纂与注解方法》(《汉文学论集》59, 2021)；《龙飞御天歌的典据与注解的文献学研究》(《语文研究》49-1, 2021)；《金允植(号：云养)与日本官僚、文文学者的诗文唱和—以〈云养集〉所收〈东槎漫吟〉和〈芝城山馆纳凉唱和集·轻妙唱和集〉为中心》(《立命館アジア・日本研究學術年報》创刊号, 2020)；《白川静先生的兴研究与〈杜律虞注〉之兴说》(《立命館白川静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紀要》10, 2017)等。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주로 문헌학, 한국한문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에 「안평대군 『비해당선半山정화』 편찬과 주해 방법」(『한문학논집』59, 2021), 「『용비어천가』의 전거과 주해의 문헌학적 연구」(『어문연구』49-1, 2021), 「김윤식과 일본인 관료·문인학자의 시문창화에 대하여: 『운양집』 수록 『동사만음』과 『지성산관남량창화집·경묘창화집』을 중심으로」(『立命館アジア・日本研究學術年報』創刊号, 2020), 「시라카와 선생의 흥(興) 연구와 『두울우주』의 흥설(興說)」(『立命館白川静記念東洋文字文化研究所紀要』10, 2017) 등이 있다.